

남북한의 치의학 용어 사용 차이에 대한 고찰

이치연¹, 김연희¹, 이승표^{1, 2*}

¹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²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접수: 2015년 10월 2일 / 수정접수: 2015년 11월 17일 / 게재 승인: 2015년 11월 18일 / 출간: 2015년 12월 31일

중심어 : 북한, 치의학 용어

서 론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서로 다른 체제에 의하여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모든 분야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발생하였고 이제는 서로 간 차이가 깊어져 혼란스러운 부분도 생기고 있다. 특히, 소통의 근간이자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언어 역시 서로 다른 정치 문화의 영향으로 정책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생활 용어에서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는 국어사전에서 어휘의 의미체계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낱말들이 생겨나 언어 소통에 장애요소가 생기고 있다^{1~2)}.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서 민족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의학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급속히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서울대학교 통일치의학협력센터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남북한 간 치의학 교류

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남북한 간 용어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간 의학 분야에서는 몇 차례 이에 대한 연구 및 토의가 이루어져왔으나 치의학 분야에서는 2000년 허진영과 이의웅의 논문¹⁾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통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한글화 정책 변화와 이에 관한 실례를 바탕으로 남북한 치의학 용어 사용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한글화 정책, 변천사

해방 직후 북한은 특별한 한글 규범을 만들지 않고 대한민국과 같은 맞춤법을 적용하였다. 아마 혼란스러운 시기로 정책적으로 선결해야 할 사항이 많았고 분단 직후로 언어에 대한 고려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948년 1월 15일 북한 어문학술단체인 '조선어문 연구회'가 <조선어 신철자법>을 제정, 공포하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교신저자 : 이승표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110-768

Tel : +82-2-740-8671, E-mail : orana9@snu.ac.kr

이어 1949년에는 한자사용을 폐지하고 한글 전용을 시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조선어 신철자법>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1953년 휴전 이후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은 나름대로의 맞춤법 체계를 가지고 독자적인 언어 정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어찌 보면 분단이 후 근 8년간은 남북한이 서로 같은 언어 규범을 가지고 있었고, 1933년 제정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54년까지 서로 공유하며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서 북한은 1966년에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 등으로 구성된 『조선말 규범집』을 제정, 공포하였다. 여기서는 표준어에 관한 사항을 맞춤법과 분리 규정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독자적 표준에 대한 정의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0년과 2003년에는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공포하였다²⁻³⁾.

북한의 기본 언어 정책은 정치적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연결되어, 항일 독립 투쟁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는 8가지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족어 교육, 2) 한자 폐지, 3) 근로자의 문맹퇴치 운동, 4) 민족어의 주체적 발전과 어휘정리 사업, 5) 언어생활의 기풍확립 운동, 6) 말과 글의 규범 정리, 7) 문자 개혁, 8) 대한민국의 언어문제 등 이다²⁾.

이후 이러한 언어정책은 남북한 간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나 정책에 따라 변화를 가지게 된다. 언어를 다듬는 작업은 1964년 시작하여,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 사용 운동이 전개되는데, 한 예로 1958년 <말과 글>로 창간

되었다가 1968년 <문화어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재창간된 잡지를 들 수 있다. 이 잡지는 문화어를 발전시켜 인민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져 언어 정책과 해설 및 관련 기사들이 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1968년 <현대조선말사전>과 1973년 <조선문화어사전>이 발간되어 외래어 및 한자어 사용에 대한 사전의 활용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 어휘정리는 1986년에 다시 변화하여 현실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어와 한자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⁴⁾.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자장면'의 예에서 겪은 것 같은 반강제적 언어 사용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언어의 현실 사용 상황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언어 정책에 비해 북한은 정부 주도하에 정책 반영의 일환으로 좀더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는 전문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외래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이 수립되었다. 북한의 외래어 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기반하여 왔으며, 이러한 교시가 외래어사용의 기본이자 변화 축으로 작용한 듯하다. 치의학의 경우 학문 발전에 따른 외래어의 유입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러한 정책의 영향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일성은 1964년~1966년 언어정책에 따른 두 차례의 교시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의 말 다듬기 사업은 이 교시내용을 기반으로 더욱 체계화하고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

1964년 교시는 다음과 같다.

- 외래어도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정리해야 한다.
- 될 수 있는 대로 외래어를 쓰지 말고 우리나라 말을 쓰도록 한다.

- 외래어를 다 없앨 수는 없다. 외래어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얼마간은 받아들여야 한다.
- 특히 과학 기술 용어로서는 외래어를 적지 않게 써야 할 것이다.
- 외국의 고유 명사는 그 나라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 우리말에 많이 섞여 들어온 외래어를 정리하고 적게 쓰도록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살려야 한다.

1966년 교시에서는 한자어와 외래어에 대한 말 다듬기를 언급하였다.

-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고치고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문화 교류를 통하여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들은 우리말로 제때에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 학술용어는 너무 풀어 쓰지 말아야 한다.
- 한자말과 외래어를 고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북한 의학논문에서 용어 변화

북한의 의학용어는 1985년에 6개국(라조로 영독프)(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의학용어사전으로 발간되었고 1만 5천 어휘로 되어있다. 근래에는 17만 어휘의 의학대사전(영조일)(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002년)과 5개 국어 과학기술 용어사전(조선과학기술출판사, 2002년)이 발간되었다⁶⁾.

1) 북한의 치의학용어 비교 분석

허진영과 이의웅이 2000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지에 발표한 <남북한의 치의학용어 비교 분석>에 따르면 남북한의 치의학 용어는 6가지 특징에 의해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6가지 특징은 1) 남북한이 모두 한자어 용어만을 사용하는 경우, 2) 순 우리말이 포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3) 외래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남북한의 맞춤법, 띄어쓰기 차이로 용어표기가 달라진 경우, 5) 서울말과 평양말의 차이로 용어가 달라진 경우, 6) 북한 치의학의 특이성을 반영한 용어 등 이다¹⁾.

간단히 일부 예를 발췌하여 보면, 남북한이 모두 한자어 용어만을 사용할 때 남북한의 용어가 다른 경우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치과치료 의자를 북한에서는 구강의자로, 마취법은 무통법으로 쓰기도 하지만 마취법으로 동일하게 쓰기도 하였다. 북한에서 순 우리말을 사용한 경우 모서리를 가장자리라고 쓰고, 깨물기(masseter)은 깨물기살로 쓰여지고 있었다.

외래어 용어를 사용한 경우 모음의 차이와 자음의 차이, 그리고 음이 첨가 또는 탈락된 예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음의 차이에는 칼슘과 칼시움, 시멘트와 세멘트, 인슐린과 인술린 등이 있었고, 자음의 차이에는 젤라틴과 겔라틴, 스파튜라와 스파치라, 살리실산과 살리절산 등이 있었다.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예로는 알칼리를 알카리로 표기하고, 에너지를 에네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들 중 일부는 2000년 이후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한자 용어가 다시 쓰이는 예가 빈번해졌으며 저자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용어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신 논문집을 토대로 이러한 변화를 다시 고찰하여 보았다.

2) 북한의학학술서 -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2011년 1호 ~ 2014년 2호⁷⁾

북한의학학술서는 김정일,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 및 의료문화 발전에 대한 다짐을 사설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 및 경험에 대한 북한 의학연구 논문들이 실려 있었다. 종설은 주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었으며, 학술서의 전체 내용에서는 사진이나 도해 없이 표를 이용하여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학술서에는 2011년 1호부터 2014년 2호까지의 의학학술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는데 본 고찰에서는 구강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용어를 확인해 보았다. 대부분 한글화(예: 이발, 아픔맞이, 삼키기장애, 이돌(dental calculus) 등)하여 사용되고 있었으며, 한자어(예: 치주염(paradentitis), 경구제제, 교합면(occlusal surface), 상악(mandible) 등) 또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일 최근인 2014년 2호에 실려 있는 논문 중에 '상악앞이빨의 기하학적비율에 대한 계측학적연구'에서는 자연이발렬, 상악앞이렬(랑쪽송곳이), 턱점선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고, 증례로 '혀압때 경부곽청술을 한 증례'에서는 구강저부, 왼쪽하악부, 활경근, 하악관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구강보철과 관련된 내용은 2011년 3호(예: 보철물제작에서 CAD/CAM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해당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끼우개보철물은 구강 외에서 제작하여 장착하는 보철물(crown)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다른 논문들에서 나타나는 용어들 중 다리이보철과 부분틀이는 각각 bridge와 partial denture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학술지에 실려 있는 구강보철논문들

의 저자는 김석준, 오용남, 정성국 등이 있었고, 그 중 김석준은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매년 연구논문 및 종설을 작성하였으며 구강보철학이라는 대학 교과서를 집필하였다⁸⁾. 김석준의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는 남북한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일부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예: 우무기, 수지면, 상리장, 이틀뚝 등)이 있었다. 수지면은 상아질(dentin)을 의미하고 이틀뚝은 틀이와 맞닿는 잇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학학술서와 구강보철학이라는 북한교과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북한의 용어가 대한민국의 치의학용어집⁹⁾에 용어들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차이로 단어가 달라진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에는 틀이, 리장법, 리목부, 련화 등이 있으며, '두음법칙'의 인정여부에 따른 차이로 립시틀이, 립상증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찰 및 결론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의 언어는 각기 다른 변화 과정을 거쳐왔다. 정치적, 이념적 영향이 언어에 미치는 큰 영향은 실생활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남북한 모두 역사적으로 외래어, 한자어의 영향이 컸고 한글화 작업의 필요성은 공통적이었으나 이를 수행하는 방법과 범위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고찰된다.

치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다행히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워낙 학술적이고 고유한 뜻을 지니는 단어의 사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북한의 말 다듬기 운동이 다시 변화하며 한자어의 재사용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자들이나 북한 단어에 대한 지식

이 없는 일반 치과의사들도 북한 논문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 어색함은 있었으나 용어에 따른 큰 어려움이 없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아직 용어의 일관된 통일 사용이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차제에 가능하다면 서로가 힘을 모아 기본 단어부터 정리해나가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며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치의학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기본 바탕으로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허진영, 이의웅 : 남북한 치의학용어의 비교 분석. 대한치과의사협회지 38(8) :741-751, 2000
2. 최기호 : 남북한 정보통신용어의 통일과 한글화. TTA 저널 89:33-40, 2003
3. 전수태 : 남북한 어문 규범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2004
4. 홍종선 : 남북 표준어의 통일화, 남북의 언어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김민수 등). 국학자료원 33- 54, 2002
5. 연규동 : 북한의 외래어-(조선말대사전)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37: 169-195, 2003
6. 대한의사협회. 남북한 의학용어. 아카데미아 1996
7. 구강, 안과, 이비인후과. 의학과학출판사 2011년 1호-2014년 2호
8. 김석준, 김상준 : 구강보철학.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주체98, 2009
9. 치의학용어집, 초판, 대한치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2005

ABSTRACT

Study of difference in dental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hi-Yeon Lee¹, Yeon-Hee Kim¹, Seung-Pyo Lee^{1,2}

¹*Department of Oral Anatom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²*Center for Korean Unification in Dentistry*

Since 1945,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vided into two nations in Korean peninsula. For 70 years, two Koreas have been changed in many aspects like economy, society, culture, and so on. And now, in 2015, there are differences in dental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need to prepare for era of United Korea. Effort of increasing academic change and understand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dentists should be progressed. In this article we will find features of dental terminology in North Korea, such as original Korean dental terminology in North Korea,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

Keywor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ntal terminology